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의 효과

박 정 옥 (경원대학교 교수)

최 문 경 (경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진흥법이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 2000년 1월 제정·공포되어, 2002년 3월부터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시행 또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영재의 판별법,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영재교육의 운영방법, 영재 담당 교사의 자질 및 연수 등 여러 방향에서의 모색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일선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의 대상을 일차적으로 추천하고, 극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에서 소외된 나머지 영재들을 교육해야 하는 일반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과 영재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은 영재교육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있어서의 선행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가 매우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이승현, 2001, 74p.; 임인섭, 2002, 45p.; 강명숙, 2003, 58p). 또한 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영재담당 교사들의 연수에서 실시한 연수 사전, 사후 설문 분석에서도, 연수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영재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석희 외, 55p)

B.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일반교실에 소외된 영재들을 일반 교사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자체 연수를 통해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고, 각 학교에서 적극

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의 현황을 분석하고, 영재교육 관련 기본지식의 습득이 영재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규명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재교육관련 기본지식에 대한 연수를 받은 후,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재교육관련 기본지식에 대한 연수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있어서,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각 연구문제에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변화,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영재의 판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영재담당교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영역에 대해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A. 영재의 정의

1. 미국 교육부는 영재아와 재능아란 지능, 창의성, 예술성, 리더십이나 특수한 학업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했거나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 교육 이상의 교육 서비스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2. Renzulli는 영재를 평균이상의 일반 혹은 특수 능력, 높은 과제집착력, 높은 창의성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인간 특성을 소유하고 있거나 장차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으로서 인간이 수행하는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에 이러한 특성을 적용하는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3. Gardner(1983)는 8가지의 다중지능(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개인 내적, 개인간(사회적), 자연 지능)에서 각 분야별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그 분야의 영재로 칭한다고 하였다.
4. Feldhusen은 재능을 “적성 또는 지능, 학습된 기능과 지식, 동기·태도·기질 등의 복합체로서, 이들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직업, 전문분야, 예술, 사업 등의 분야에서 성공을 미리 운명지어 놓는다.”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영재성에 관하여는 “지능, 적성, 재능, 기능, 전문성, 동기, 창의성의 복합체로서 한 개인으로 하여금 문화나 시대가 가치 있게 여기는 특정 분야에서의 생산적인 수행을 미리 운명지어 놓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993).
5. Sternberg(1986)는 정보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영재성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삼요인 이론(Triarchic theory)에 바탕을 두고 영재성을 정의하였다. 분석적 영재성(Analytic Giftedness)은 지능검사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말하는데, 이 영재성은 지적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과정과 기제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6. Gagné는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타고난 영재성과 개발된 특수재능을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타고난 영재성이 특수재능으로 발달되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영재성은 천성적으로 타고났거나 체계적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 적성이라 불리는 인간의 능력을 영재성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영재성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인간의 특정 활동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능으로 나타났을 때, 이를 특수재능이라고 보았다.

B. 영재의 특성

1. 지적 능력 영역에서의 특성 -“두뇌”- : 묵상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분석적으로 생각한다. 학습에 대한 열정이 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있다. 문제 발견 능력이 있다. 인지 발달 속도가 빠르다.
2. 특별한 학습 능력 영역 -“전문가”- : 강하고 집중적인 흥미와 기능이 있다. 학습에 대한 강하고 집중적인 동기가 있다. 자기비판의 경향이 있다. 성취욕이 강하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뛰어나다. 학습에 대한 열정이 있다.
3. 창의적-생산적 사고 영역 -“창의적 사고”- : 융통성이 있다. 독특한 구조화를 한다. 위험을 수용한다. 애매모호함에 대해 관대하다. 자아 개념이 긍정적이다. 내적 통제력이 강하다.
4. 지도력과 심리적 영역 -“사회적 지도자”- : 거꾸로 계획하는 능력이 있다. 스케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성취욕이 있다. 사회적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조망능력 (Perspective-Taking)이 있다.
5.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 영역 -“비범한 예술인”- : 강하고 집중적인 흥미와 기능이 있다. 학습에 대한 강하고 집중적인 동기가 있다. 자기 비판력이 강한 경향이 있다. 예술 형식에 대한 강한 집중력을 지니고 있다. 언어 인지와 시각인지를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C. 영재의 판별 방법

1. 지능검사로 개인검사와 집단검사가 있으며, 지능검사의 큰 장점은 실제 능력과 학교 성적간의 불일치가 심한 학생들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특수 학문적 재능을 위한 표준화된 검사들은 전국적인 수준의 규준에 근거해서 점수를 산출한다.

3. 창의성 검사는 학생들의 창의성에 대한 교사의 의구심을 확인하고 여러 교실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도 독특한 재능이 있는 창의적인 학생을 판별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4. 지명 방법에는 크게 교사 지명, 부모 지명, 또래 지명, 그리고 자기 지명이 있다.
8. 학생의 시나 과학 프로젝트, 전기 혹은 컴퓨터 프로젝트, 연기력, 사진, 색다른 취미 등의 산출물 평가는 높은 창의성, 과학 능력, 문장력, 분석 또는 종합 능력 등이 반영된다.

D. 영재의 교육

1. 속진 (Acceleration) : 속진이란 특정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 속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업 내용을 더 빨리 학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학생의 학년 수준보다 더 상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속진학습의 유형에는 조기 입학, 조기 대학 입학, 월반, 시간제 학년 속진, 학년단축, 개별 진도학습 등이 있다.
2. 심화 (Enrichment) : 심화학습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내용보다 내용의 폭과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화학습의 유형에는 개별 연구, 전문가 사사(mentorship), 토요 프로그램 및 방학 프로그램, 박물관 및 과학센터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압축 (Telescoping) : 정상적인 학업 이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과정을 2년 동안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4. Osborn-Parnes의 “창의적 문제해결모형” (Creative Problem Solving Model) : 창의적 문제해결모형이란 실제의 상황이나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상력”의 활용을 최대로 촉진시켜주는 종합적인 정신과정이다. 이 모형은 문제현상의 파악, 자료의 수집, 문제의 발견, 아이디어의 발견, 해결안 발견, 수용안 발견 등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III.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4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역점 사업으로 영재 학급을 운영하는 영재 중심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두 8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B.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를 위해 본 연구자는 설문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와 영재교육에 대한 문헌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제작하였다.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영재의 특성, 영재의 판별, 영재의 교육 프로그램, 영재담당교사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도구의 타당도는 영재교육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변 인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3	7.5
	녀	161	92.5
교직경력	5년 미만	34	19.5
	5년 ~ 10년 미만	26	14.9
	10년 ~ 15년 미만	20	11.5
	15년 ~ 20년 미만	22	12.6
	20년 이상	72	41.4
연령	20대	26	14.9
	30대	54	31.0
	40대	51	29.3
	50대	40	23.0
	60대	3	1.7
영재교육관련 연수 경험	있다	14	8.0
	없다	160	92.0
영재아들을 지도해 본 경험	있다	6	3.4
	없다	168	96.6
전 체		174	100

<표 2>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

영역	문항 번호 및 내용	문항 수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영재교육진흥법 2. 교육이 영재에 미치는 영향 3. 영재교육 필요성 3-(1). 필요 이유 3-(2). 불필요 이유 4. 영재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 5. 영재교육 추천 의사 6. 영재교육의 활성화 10. 영재의 지도 실태 13. 영재교육 효율성의 조건	10
영재의 특성	15. 영재의 특성(1-16)	16
영재의 판별	7. 영재교육 실시 시기 8. 영재 판별 방법 9. 학급 내 영재의 유무	3
영재교육 프로그램	11. 영재 프로그램 이해도 11-(1). 영재 프로그램 사용 의향 16. 영재교육 프로그램(1-9)	11
영재 담당 교사	12. 영재교육 연수 참여 의향 12-(1). 참여, 불참여 이유 14. 영재 담당 교사 의향 14-(1). 이유 14-(2). 원하는 인센티브	5

C.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본 연구의 실제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자들이 설문 조사 및 연수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설문지의 적절성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 1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실제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았다.

2. 본 조사

본 연구를 위해 2004년 4월과 5월에 걸쳐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소재의 영재 중심 초등학교 7개 학교와 일반 학교 한 학교, 모두 8개 학교를 방문해서 연수와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전 설문지를 교사들에게 작성하게 한 후에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영재 교육관련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직접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수를 실시한 후에 다시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8개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 총 19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80여부를 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6부를 제외하고 총 17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D. 자료의 처리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전산화된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0.1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처리를 위해 사용된 방법은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 및 백분율, 그리고 변인별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검증)을 사용하였다. 배경변인 중 영재교육관련 연수의 경험 여부와 영재지도의 경험 여부는 응답자 비율이 너무 낮아 변인간 비교를 위한 결과 분석의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았다.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판정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E.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재직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대상 지역과 특성이 다른 도시나 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연수를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사후 설문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에도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 지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

한 습득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해보고, 영재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연수를 하여 일정 기간 후에 인식의 변화를 탐색해 보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A.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3>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영재교육진흥법 2. 교육이 영재에 미치는 영향 3. 영재교육 필요성 3-(1). 필요 이유 3-(2). 불필요 이유 4. 영재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 5. 영재교육 추천 의사 6. 영재교육의 활성화 10. 영재의 지도 실태 13. 영재교육 효율성의 조건

1.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분석

<표 4>와 같이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자세한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에는 접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후 설문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교사 14명을 제외한 1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후 설문의 응답에서 무응답의 경우가 많은 데 그 이유는 연수 전의 과도한 수업과 연수 후에 사전 설문과 중복되는 설문, 그리고 실제 현장과 관련 없는 전문적인 내용의 연수로 인한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연수의 효과로 영재교육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에서 변인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p>.05$).

<표 4>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 N(%) -

변인	구분	사전 설문				χ^2	P	사후 설문				χ^2	P
		잘 알고 있다	들어 봤다	모른다	전체			잘 알고 있다	들어 봤다	모른다	전체		
성별	남	3 (23.1)	8 (61.5)	2 (15.4)	13 (100)	.901	.637	7 (58.3)	5 (41.7)	0 (0)	12 (100)	.644	.725
	여	28 (17.4)	118 (73.3)	15 (9.3)	161 (100)			71 (48.0)	74 (50.0)	3 (2.0)	148 (100)		
교직경력	5년 미만	3 (8.8)	27 (79.4)	4 (11.8)	34 (100)	7.531	.481	14 (45.2)	16 (51.6)	1 (3.2)	31 (100)	11.631	.168
	5년 ~ 10년 미만	4 (15.4)	207 (65.0)	2 (7.7)	26 (100)			13 (50.0)	13 (50.0)	0 (0)	26 (100)		
	10년 ~ 15년 미만	3 (15.0)	13 (65.0)	4 (20.0)	20 (100)			5 (25.0)	14 (70.0)	1 (5.0)	20 (100)		
	15년 ~ 20년 미만	5 (22.7)	14 (63.6)	3 (13.6)	22 (100)			15 (75.0)	5 (25.0)	0 (0)	20 (100)		
	20년 이상	16 (22.2)	52 (72.2)	4 (5.6)	72 (100)			31 (49.2)	31 (49.2)	1 (1.6)	63 (100)		
	전체	31 (17.8)	126 (72.4)	17 (9.8)	174 (100)			78 (48.8)	79 (49.4)	3 (1.9)	160 (100)		
연령	20대	3 (11.5)	19 (73.1)	4 (15.4)	26 (100)	6.339	.609	12 (50.0)	12 (50.0)	0 (0)	24 (100)	5.032	.754
	30대	7 (13.0)	40 (74.1)	7 (13.0)	54 (100)			23 (44.2)	28 (53.8)	1 (1.9)	52 (100)		
	40대	12 (23.5)	36 (70.6)	3 (5.9)	51 (100)			27 (56.3)	20 (41.7)	1 (2.1)	48 (100)		
	50대	9 (22.5)	28 (70.0)	3 (7.5)	40 (100)			14 (41.2)	19 (55.9)	1 (2.9)	34 (100)		
	60대	0 (0)	3 (100)	0 (0)	3 (100)			2 (100)	0 (0)	0 (0)	2 (1.3)		
전체	31 (17.8)	126 (72.4)	17 (9.8)	174 (100)	78 (48.8)	79 (49.4)	3 (1.9)	160 (100)					

2. 교육이 영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분석

<표 5>와 같이 많은 교사들이 현재의 초등학교의 교육 실태가 영재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재의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고 있지 못하다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사후 설문 결과 연수 후에 많은 교사들이 영재를 위한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초등학교 교육 실태가 영재에게 부적합함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전 설문에서 변인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p > .05$). 그러나 사후 설문에서는 현재의 초등학교 교육이 영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직 경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영재의 잠재능력이 제대로 계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항목에 높은 응답을 한 반면,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잘 계발시켜 주고 있다는 항목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3.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분석

<표 6>과 같이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으

며, 사후 설문 결과 연구 후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무응답을 하거나 필요하
 에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사전 설문과 사후 설
 문에 있어서 변인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p>.05).

4.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분석

<표 7>과 같이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국가적 목적인 미래의 인재 양
 성이나 사회적 목적인 균등한 교육 기회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목적인 아동의 잠재적
 능력 발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사후 설문 결과 연구 후에

<표 5> 교육이 영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N(%)-

구 분		사 전 설 문							사 후 설 문						
		잘 계발시 킴	특 별 관 영향 없음	계 발 되 지 못 함	잘 모 름	전 체	χ^2	P	잘 계발시 킴	특 별 관 영향 없음	계 발 되 지 못 함	잘 모 름	전 체	χ^2	P
성 별	남	2 (15.4)	3 (23.1)	7 (53.8)	1 (7.7)	13 (100)	2.965	.397	0 (0)	5 (41.7)	7 (58.3)	0 (0)	12 (100)	3.640	.303
	여	7 (4.4)	41 (25.8)	94 (59.1)	17 (10.7)	159 (100)			16 (11.3)	30 (21.3)	93 (66.0)	2 (1.4)	141 (100)		
교 직 경 력	5년 미만	1 (3.0)	9 (27.3)	22 (66.7)	1 (3.0)	33 (100)	12.712	.390	3 (9.7)	3 (9.7)	25 (80.6)	0 (0)	31 (100)	23.732	.022*
	5년 ~ 10년 미만	1 (3.8)	3 (11.5)	19 (73.1)	3 (11.5)	26 (100)			1 (3.8)	4 (15.4)	19 (73.1)	2 (7.7)	26 (100)		
	10년 ~ 15년 미만	0 (0)	7 (35.0)	11 (55.0)	2 (10.0)	20 (100)			0 (0)	7 (38.9)	11 (61.1)	0 (0)	18 (100)		
	15년 ~ 20년 미만	0 (0)	6 (27.3)	13 (59.1)	3 (13.6)	22 (100)			3 (15.8)	7 (36.8)	9 (47.4)	0 (0)	19 (100)		
	20년 이상	7 (9.9)	19 (26.8)	36 (50.7)	9 (12.7)	71 (100)			9 (15.3)	14 (23.7)	36 (61.0)	0 (0)	59 (100)		
	20대	0 (0)	7 (28.0)	16 (64.0)	2 (8.0)	25 (100)			2 (8.3)	2 (8.3)	19 (79.2)	1 (4.2)	24 (100)		
30대	2 (3.7)	8 (14.8)	39 (72.2)	5 (9.3)	54 (100)	3 (5.9)	10 (19.6)	37 (72.5)	1 (2.0)	51 (100)					
40대	2 (3.9)	19 (37.3)	26 (51.0)	4 (7.8)	51 (100)	6 (13.0)	14 (30.4)	26 (56.5)	0 (0)	46 (100)					
50대	4 (10.3)	10 (25.6)	18 (46.2)	7 (17.9)	39 (100)	5 (16.7)	9 (30.0)	16 (53.3)	0 (0)	30 (100)					
60대	1 (33.3)	0 (0)	2 (66.7)	0 (0)	3 (100)	0 (0)	0 (0)	2 (100)	0 (0)	2 (100)					
전 체		9 (5.2)	44 (25.6)	101 (58.7)	18 (10.5)	172 (100)			16 (10.5)	35 (22.9)	100 (65.4)	2 (1.3)	153 (100)	* p<.05	

<표 6>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N(%)-

변인	구분	사전 설문					사후 설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P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P
성별	남	12 (92.3)	0 (0)	1 (7.7)	13 (100)	.375	.829	12 (100)	0 (0)	0 (0)	12 (100)	.166	.920
	여	140 (87.5)	3 (1.9)	17 (10.6)	160 (100)			144 (98.6)	1 (0.7)	1 (0.7)	146 (100)		
교직경력	5년 미만	28 (84.8)	1 (3.0)	4 (12.1)	33 (100)	5.361	.718	31 (100)	0 (0)	0 (0)	31 (100)	6.655	.574
	5년 ~ 10년 미만	25 (96.2)	0 (0)	1 (3.8)	26 (100)			25 (96.2)	0 (0)	1 (3.8)	26 (100)		
	10년 ~ 15년 미만	16 (80.0)	0 (0)	4 (20.0)	20 (100)			19 (100)	0 (0)	0 (0)	19 (100)		
	15년 ~ 20년 미만	20 (90.9)	0 (0)	2 (9.1)	22 (100)			20 (100)	0 (0)	0 (0)	20 (100)		
	20년 이상	63 (87.5)	2 (2.8)	7 (9.7)	72 (100)			61 (98.4)	1 (1.6)	0 (0)	62 (100)		
연령	20대	22 (88.0)	1 (4.0)	2 (8.0)	25 (100)	2.637	.955	23 (95.8)	0 (0)	1 (4.2)	24 (100)	7.913	.442
	30대	48 (88.9)	0 (0)	6 (11.1)	54 (100)			5 (100)	0 (0)	0 (0)	51 (100)		
	40대	45 (88.2)	1 (2.0)	5 (9.8)	51 (100)			47 (97.9)	1 (2.1)	0 (0)	48 (100)		
	50대	34 (85.0)	1 (2.5)	5 (12.5)	40 (100)			33 (100)	0 (0)	0 (0)	33 (100)		
	60대	3 (100)	0 (0)	0 (0)	3 (100)			2 (100)	0 (0)	0 (0)	2 (100)		
전체		152 (87.9)	3 (1.7)	18 (10.4)	173 (100)			156 (98.7)	1 (0.6)	1 (0.6)	158 (100)		

개인적 측면의 영재교육보다 국가적 측면의 영재교육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재교육의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사전 설문 시 변인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p>.05$). 그러나 사후 설문에서는 교직 경력과 연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적을수록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응답을 한 반면,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60대 제외) 국가적 측면의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응답을 하였다.

<표 7>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N(%) -

구분	사전 설문						사후 설문							
	미래의 인재 양성	아동의 잠재력 발휘	교육의 혜택	기타	전체	χ^2	P	미래의 인재 양성	아동의 잠재력 발휘	교육의 혜택	기타	전체	χ^2	P
성별	남	7 (58.3)	5 (41.7)	0 (0)	0 (0)	12 (100)	1.872	.599	6 (50.0)	5 (41.7)	1 (8.3)	12 (100)	.010	.995
	여	60 (42.9)	66 (47.1)	13 (9.3)	1 (0.7)	140 (100)			71 (50.0)	58 (40.8)	13 (9.2)	142 (100)		
교직 경력	5년 미만	8 (28.6)	16 (57.1)	3 (10.7)	1 (3.6)	28 (100)	19.555	.076	8 (26.7)	17 (56.7)	5 (16.7)	30 (100)	22.413	.004*
	5년 ~ 10년 미만	9 (36.0)	11 (44.0)	5 (20.0)	0 (0)	25 (100)			9 (37.5)	11 (45.8)	4 (16.7)	24 (100)		
	10년 ~ 15년 미만	6 (37.5)	7 (43.8)	3 (18.8)	0 (0)	16 (100)			9 (47.4)	6 (31.6)	4 (21.1)	19 (100)		
	15년 ~ 20년 미만	9 (45.0)	11 (55.0)	0 (0)	0 (0)	20 (100)			11 (55.0)	8 (40.0)	1 (5.0)	20 (100)		
	20년 이상	35 (55.6)	26 (41.3)	2 (3.2)	0 (0)	63 (100)			40 (65.6)	21 (34.4)	0 (0)	61 (100)		
	전체	8 (36.4)	12 (54.5)	2 (9.1)	0 (0)	22 (100)			7 (31.8)	13 (59.1)	2 (9.1)	22 (100)		
연령	20대	16 (33.3)	25 (52.1)	6 (12.5)	1 (2.1)	48 (100)	13.760	.316	21 (42.0)	21 (42.0)	8 (16.0)	50 (100)	16.411	.037*
	30대	26 (57.8)	15 (33.3)	4 (8.9)	0 (0)	45 (100)			26 (55.3)	17 (36.2)	4 (8.5)	47 (100)		
	40대	17 (50.0)	16 (47.1)	1 (2.9)	0 (0)	34 (100)			23 (69.7)	10 (30.3)	0 (0)	33 (100)		
	50대	0 (0)	3 (100)	0 (0)	0 (0)	3 (100)			0 (0)	2 (100)	0 (0)	2 (100)		
	60대	67 (44.1)	71 (46.7)	13 (8.6)	1 (0.7)	152 (100)			77 (50.0)	63 (40.9)	14 (9.1)	154 (100)		
전체														* p<.05

5. 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분석

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응한 교사들은 사전 설문시 3명, 사후 설문 시 1명으로 아주 적었기 때문에 변인별 분석이나 빈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 사전 설문시 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3명 중 2명이 지식위주의 교육보다 전인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기타 항목에 '채대로 된 영재교육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영재 선발 시 기준이 모호하여 영재아로 선발된다는 것 자체에도 믿음이 가진 않아 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사후 설문시 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1명도 지식위주의 교육보다 전인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수의 교사이긴 하지만 아직도 전인교육이나 평준화 교육이라는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6. 영재의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분석

<표 8>과 같이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영재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후 설문 결과에서도 이미 영재의 특별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연수를 통한 인식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의 변인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표 8> 영재의 특별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N(%)-

구분	변인	사전 설문					사후 설문						
		긍정적	부정적	잘 모름	전체	χ^2	P	긍정적	부정적	잘 모름	전체	χ^2	P
성별	남	10 (83.3)	0 (0)	2 (16.7)	12 (100)	1.089	.580	12 (100)	0 (0)	0 (0)	12 (100)	.424	.809
	여	136 (87.7)	5(3) (2)	14 (9.0)	155 (100)			141 (96.6)	3 (2.1)	2 (1.4)	146 (100)		
교직경력	5년 미만	26 (81.3)	3 (9.4)	3 (9.4)	32 (100)	7.737	.460	29 (93.5)	1 (3.2)	1 (3.2)	31 (100)	3.473	.901
	5년 ~ 10년 미만	21 (87.5)	0 (0)	3 (12.5)	24 (100)			25 (96.2)	1 (3.8)	0 (0)	26 (100)		
	10년 ~ 15년 미만	18 (90.0)	0 (0)	2 (10.0)	20 (100)			19 (100)	0 (0)	0 (0)	19 (100)		
	15년 ~ 20년 미만	18 (81.8)	1 (4.5)	3 (13.6)	22 (100)			20 (100)	0 (0)	0 (0)	20 (100)		
	20년 이상	63 (91.3)	1 (1.4)	5 (7.2)	69 (100)			60 (96.8)	1 (1.6)	1 (1.6)	62 (100)		
	20대	20 (83.3)	2 (8.3)	2 (8.3)	24 (100)			22 (91.7)	1 (4.2)	1 (4.2)	24 (100)		
	30대	43 (82.7)	2 (3.8)	7 (13.5)	52 (100)			51 (100)	0 (0)	0 (0)	51 (100)		
연령	40대	47 (94.0)	0 (0)	3 (6.0)	50 (100)	47 (97.9)	1 (2.1)	0 (0)	48 (100)	5.729	.678		
	50대	33 (86.8)	1 (2.6)	4 (10.5)	38 (100)	31 (93.9)	1 (3.0)	1 (3.0)	33 (100)				
	60대	3 (100)	0 (0)	0 (0)	3 (100)	2 (100)	0 (0)	0 (0)	2 (100)				
	전체	146 (87.4)	5 (3.0)	16 (9.6)	167 (100)	153 (96.8)	3 (1.9)	2 (1.3)	158 (100)				

<표 9> 영재교육 추천 의사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N(%)-

구분	변인	사전 설문					사후 설문				
		있다	없다	전체	χ^2	P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	13 (100)	0 (0)	13 (100)	.505	.477	12 (100)	0 (0)	12 (100)	.342	.559
	여	154 (96.3)	6 (3.8)	160 (100)			140 (97.2)	4 (2.8)	144 (100)		
교직경력	5년 미만	32 (97.0)	1 (3.0)	33 (100)	2.821	.588	30 (96.8)	1 (3.2)	31 (100)	7.152	.128
	5년 ~ 10년 미만	26 (100)	0 (0)	26 (100)			25 (96.2)	1 (3.8)	26 (100)		
	10년 ~ 15년 미만	19 (95.0)	1 (5.0)	20 (100)			17 (89.5)	2 (10.5)	19 (100)		
	15년 ~ 20년 미만	22 (100)	0 (0)	22 (100)			20 (100)	0(0)	20 (100)		
	20년 이상	68 (94.4)	4 (5.6)	72 (100)			60 (100)	0 (0)	60 (100)		
	20대	24 (96.0)	1 (4.0)	25 (100)			22 (91.7)	2 (8.3)	24 (100)		
	30대	53 (98.1)	1 (1.9)	54 (100)			51 (100)	0(0)	51 (100)		
연령	40대	50 (98.0)	1 (2.0)	51 (100)	2.839	.585	46 (95.8)	2 (4.2)	48 (100)	5.90	.207
	50대	37 (92.5)	3 (7.5)	40 (100)			31 (100)	0(0)	31 (100)		
	60대	3 (100)	0 (0)	3 (100)			2 (100)	0(0)	2 (100)		
	전체	167 (96.5)	6 (3.5)	173 (100)			152 (97.4)	4 (2.6)	156 (100)		

7. 영재교육 추천 의사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분석

<표 9>와 같이 많은 교사들이 영재들에게 적합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을 보였다. 사후 설문 결과 연수 후에는 무응답자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는 항목의 비율은 늘었지만 교사들의 수는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한 추천 의사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 모두 변인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8.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분석

<표 10>과 같이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전망을 희망적으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 설문 결과 연수 후에는 이미 영재교육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인식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사전, 사후 설문 모두에 있어서 변인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10>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N(%)-

구 분	사 전 설 문						사 후 설 문						
	긍정적	부정적	잘 모름	전체	χ^2	P	긍정적	부정적	잘 모름	전체	χ^2	P	
성 별	남	12 (92.3)	0 (0)	1 (7.7)	13 (100)	.103	.950	12 (100)	0 (0)	0 (0)	12 (100)	.337	.845
	여	144 (90.6)	1 (0.6)	14 (8.8)	159 (100)			142 (97.3)	1 (0.7)	3 (2.1)	146 (100)		
교 직 경 력	5년 미만	29 (87.9)	0 (0)	4 (12.1)	33 (100)	8.077	.426	31 (100)	0 (0)	0 (0)	31 (100)	8.302	.404
	5년 ~ 10년 미만	26 (100)	0 (0)	0 (0)	26 (100)			25 (96.2)	1 (3.8)	0 (0)	26 (100)		
	10년 ~ 15년 미만	16 (80.0)	0 (0)	4 (20.0)	20 (100)			18 (94.7)	0 (0)	1 (5.3)	19 (100)		
	15년 ~ 20년 미만	21 (95.5)	0 (0)	1 (4.5)	22 (100)			20 (100)	0 (0)	0 (0)	20 (100)		
	20년 이상	64 (90.1)	1 (1.4)	6 (8.5)	71 (100)			60 (96.8)	0 (0)	2 (3.2)	62 (100)		
연 령	20대	22 (88.0)	0 (0)	3 (12.0)	25 (100)	6.467	.5950	23 (95.8)	1 (4.2)	0 (0)	24 (100)	6.321	.611
	30대	49 (90.7)	0 (0)	5 (9.3)	54 (100)			50 (98.0)	0 (0)	1 (2.0)	51 (100)		
	40대	49 (96.1)	0 (0)	2 (3.9)	51 (100)			47 (97.9)	0 (0)	1 (2.1)	48 (100)		
	50대	33 (84.6)	1 (2.6)	5 (12.8)	39 (100)			32 (97.0)	0 (0)	1 (3.0)	33 (100)		
	60대	3 (100)	0 (0)	0 (0)	3 (100)			2 (100)	0 (0)	0 (0)	2 (100)		
전 체	156 (90.7)	1 (0.6)	15 (8.7)	172 (100)			154 (97.5)	1 (0.6)	3 (1.9)	158 (100)			

9. 영재 지도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분석

이 문항에서는 복수 응답을 가능하게 하고 순위를 적도록 했기 때문에 변인별 분석

이 아닌 항목별 순위 분석을 하였다. <표 11>과 같이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재교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학급 내 영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교육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 설문 결과 연수 후에는 교사들이 영재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직접 지도하겠다는 경향으로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연수를 통해 영재교육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 태도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10.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것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분석

이 문항에서는 복수 응답을 가능하게 하고, 순위를 적도록 했기 때문에 변인별 분석이 아닌 항목별 순위 분석을 하였다.

<표 12>와 같이 영재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료, 영재를 직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와 양성이 영재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실지로 본 연구자가 연수를 할 때에도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적인 면보다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나 그 예에 대한 자료를 통한 연수 부분과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각종 검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사후 설문 결과 연수 후에도 사전 설문과 동일하게 직접적인 프로그램과 자료, 그리고 전문적인 교사를 영재교육의 효율적 원인으로 보았다. 영재학교나 영재학급의 설치와 자료의 개발과 보급 항목이 조금 줄고 사회의 인식 증대 항목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영재 지도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복수 응답) -N(%)-

구 분 \ 순 위	사 전 설 문				사 후 설 문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다른 아동과 똑같이 정규 수업으로 지도	45 (25.9)	2 (1.1)	2 (1.1)	49 (9.4)	3 (1.7)	0 (0)	3 (1.7)	6 (1.1)
정규 수업 중 심화학습의 기회 제공	21 (12.1)	7 (4.0)	1 (0.6)	29 (5.6)	24 (13.8)	20 (11.5)	28 (16.1)	72 (13.8)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	20 (11.5)	5 (2.9)	1 (0.6)	26 (5.0)	112 (64.4)	18 (10.3)	1 (0.6)	131 (25.1)
학부모에게 지도 방법을 안내	13 (7.5)	3 (1.7)	1 (0.6)	17 (3.3)	14 (8.0)	44 (25.3)	14 (8.0)	72 (13.8)
무응답	75 (43.1)	157 (90.2)	169 (97.1)	401 (76.8)	21 (12.1)	92 (52.9)	128 (73.6)	241 (46.2)
전 체	174 (100)	174 (100)	174 (100)	522 (100)	174 (100)	174 (100)	174 (100)	522 (100)

〈표 12〉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복수 응답)

구 분	순 위	사 전 설 문				사 후 설 문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의 연수와 양성		40 (23.0)	38 (21.8)	39 (22.4)	117 (22.4)	40 (23.0)	28 (16.1)	35 (20.1)	103 (19.7)
영재학급이나 영재학교의 설치		12 (6.9)	15 (8.6)	27 (15.5)	54 (10.3)	8 (4.6)	20 (11.5)	18 (10.3)	46 (8.8)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자료의 개발과 보급		56 (32.2)	37 (21.3)	24 (13.8)	117 (22.4)	39 (22.4)	47 (27.0)	27 (15.5)	113 (21.6)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 학부모 및 사회의 인식 증대		19 (10.9)	9 (5.2)	7 (4.0)	35 (6.7)	27 (15.5)	7 (4.0)	10 (5.7)	44 (8.4)
영재에 대한 정확한 판별 방법		43 (24.7)	35 (20.1)	12 (6.9)	90 (17.2)	33 (19.0)	15 (8.6)	11 (6.3)	59 (11.3)
모르겠다		1 (0.6)	0 (0)	0 (0)	1 (0.2)	0 (0)	0 (0)	0 (0)	0 (0)
기타 및 무응답		3 (1.7)	40 (23.0)	65 (37.4)	108 (20.7)	27 (15.5)	57 (32.8)	73 (42.0)	157 (30.1)
전 체		174 (100)	174 (100)	174 (100)	522 (100)	174 (100)	174 (100)	174 (100)	522 (100)

B.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13〉 영재의 특성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재의 특성	15. 영재의 특성 (1-16)

영재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변인별 분석을 하지 않고, 정답자 수와 오답자 수의 빈도와 백분율을 가지고 해석하였다. 이는 영재의 특성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교사의 빈도를 이용한 분석으로도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연수로 인한 인식의 변화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14〉와 같이 대체로 영재들의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오답이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재에 대해 지적인 면에서는 교사들이 지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심리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담에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영재아의 정의적 측면에서의 연수와 영재 상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사후 설문 결과 연수 후에는 모든 항목에서 정답자의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영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표 14> 영재의 특성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N(%)-

문항 번호 및 내용	구 분	사전 설문				사후 설문			
		정답	오답	무응답	전체	정답	오답	무응답	전체
1	영재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동만을 뜻한다.	153 (87.9)	8 (4.6)	13 (7.5)	174 (100)	158 (90.8)	2 (1.1)	14 (8.0)	174 (100)
2	영재는 일반 아동에 비해 유머감이 뛰어나다.	53 (30.5)	108 (62.1)	13 (7.5)	174 (100)	141 (81.0)	18 (10.3)	15 (8.6)	174 (100)
3	영재는 인지발달 속도가 일반 아동보다 빠르다.	150 (86.2)	19 (10.9)	5 (2.9)	174 (100)	150 (86.2)	10 (5.7)	14 (8.0)	174 (100)
4	영재는 일반 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39 (22.4)	121 (69.5)	14 (8.0)	174 (100)	133 (76.4)	27 (15.5)	14 (8.0)	174 (100)
5	영재는 일반 아동에 비해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115 (66.1)	43 (24.7)	16 (9.2)	174 (100)	131 (75.3)	27 (15.5)	16 (9.2)	174 (100)
6	영재는 관심이 있는 일은 끝까지 몰두하는 강한 과제 집착력을 갖고 있다.	164 (94.3)	5 (2.9)	5 (2.9)	174 (100)	154 (88.5)	6 (3.4)	14 (8.0)	174 (100)
7	영재는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2 (58.6)	60 (34.5)	12 (6.9)	174 (100)	130 (74.7)	30 (17.2)	14 (8.0)	174 (100)
8	영재는 일반 아동에 비해 신체 발육이 빠른 편이다.	24 (13.8)	137 (78.7)	13 (7.5)	174 (100)	123 (70.7)	36 (20.7)	15 (8.6)	174 (100)
9	영재들은 정서적으로 예민하다.	125 (71.8)	37 (21.3)	12 (6.9)	174 (100)	148 (85.1)	11 (6.3)	15 (8.6)	174 (100)
10	수업에 잘 적응을 못하거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아동 중에도 영재가 있을 수 있다.	140 (80.5)	25 (14.4)	9 (5.2)	174 (100)	156 (89.7)	3 (1.7)	15 (8.6)	174 (100)
11	영재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다.	97 (55.7)	61 (35.1)	16 (9.2)	174 (100)	146 (83.9)	12 (6.9)	16 (9.2)	174 (100)
12	영재는 반복하거나 혼란받는 것을 싫어한다.	124 (71.3)	40 (23.0)	10 (5.7)	174 (100)	147 (84.5)	11 (6.3)	16 (9.2)	174 (100)
13	영재는 완벽한 것을 좋아한다.	67 (38.5)	93 (53.4)	14 (8.0)	174 (100)	141 (81.0)	19 (10.9)	14 (8.0)	174 (100)
14	영재는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156 (89.7)	5 (2.9)	13 (7.5)	174 (100)	154 (88.5)	5 (2.9)	15 (8.6)	174 (100)
15	영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할 수 있다.	154 (88.5)	7 (4.0)	13 (7.5)	174 (100)	152 (87.4)	8 (4.6)	14 (8.0)	174 (100)
16	영재는 어릴 때부터 일반 아동과 다르다.	89 (51.1)	71 (40.8)	14 (8.0)	174 (100)	132 (75.9)	28 (16.1)	14 (8.0)	174 (100)
전 체		1752 (62.9)	840 (30.2)	192 (6.9)	2784 (100)	2296 (82.5)	253 (9.1)	235 (8.4)	2784 (100)

C. 영재의 판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15> 영재의 판별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재의 판별	7. 영재교육 실시 시기 8. 영재 판별 방법 9. 학급 내 영재의 유무

1. 영재교육 실시시기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16>과 같이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이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이미

찾고 있었다. 그리고 영재교육 실시시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변인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17>과 같이 연수를 통해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응답한 교사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재 판별의 시기가 유치원으로 많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후 설문에 있어서 변인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표 16> 영재교육 실시시기에 대한 사전 설문 분석 -N(%)-

변 인		구 분							χ^2	p
		유치원	초등 저학년	초등 중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 학교	전체		
성 별	남	4(30.8)	1(7.7)	5(38.5)	1(7.7)	2(15.4)	0(0)	13(100)	4.942	.423
	여	39(24.4)	43(26.9)	34(21.3)	28(17.5)	14(8.8)	2(1.3)	160(100)		
교 직 경 력	5년 미만	9(27.3)	7(21.2)	8(24.2)	4(12.1)	5(15.2)	0(0)	33(100)	14.924	.781
	5년~10년 미만	6(23.1)	7(26.9)	7(26.9)	6(23.1)	0(0)	0(0)	26(100)		
	10년~15년 미만	5(25.0)	4(20.0)	2(10.0)	5(25.0)	3(15.0)	1(5.0)	20(100)		
	15년~20년 미만	3(13.6)	6(27.3)	7(31.8)	4(18.2)	2(9.1)	0(0)	22(100)		
	20년 이상	20(27.8)	20(27.8)	15(20.8)	10(13.9)	6(8.3)	1(1.4)	72(100)		
연 령	20대	5(20.0)	4(16.0)	9(36.0)	2(8.0)	5(20.0)	0(0)	25(100)	20.750	.412
	30대	14(25.9)	16(29.6)	11(20.4)	11(20.4)	1(1.9)	1(1.9)	54(100)		
	40대	12(23.5)	14(27.5)	11(21.6)	7(13.7)	7(13.7)	0(0)	51(100)		
	50대	12(30.0)	8(20.0)	7(17.5)	9(22.5)	3(7.5)	1(2.5)	40(100)		
	60대	0(0)	2(66.7)	1(33.3)	0(0)	0(0)	0(0)	3(100)		
전 체		43(24.9)	44(25.4)	39(22.5)	29(16.8)	16(9.2)	2(1.2)	173 (100)		

<표 17> 영재교육 실시시기에 대한 사후 설문 분석 -N(%)-

변 인		구 분							χ	p
		유치원	초등 저학년	초등 중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 학교	전체		
성 별	남	7(58.3)	2(16.7)	0(0)	3(25.0)	0(0)	0(0)	12(100)	8.117	.087
	여	76(52.8)	42(29.2)	15(10.4)	8(5.6)	3(2.1)	0(0)	144(100)		
교 직 경 력	5년 미만	20(64.5)	6(19.4)	2(6.5)	2(6.5)	1(3.2)	0(0)	31(100)	18.091	.319
	5년~10년 미만	16(64.0)	4(16.0)	3(12.0)	1(4.0)	1(4.0)	0(0)	25(100)		
	10년~15년 미만	8(44.4)	4(22.2)	3(16.7)	3(16.7)	0(0)	0(0)	18(100)		
	15년~20년 미만	7(35.0)	10(50.0)	2(10.0)	0(0)	1(5.0)	0(0)	20(100)		
	20년 이상	32(51.6)	20(32.3)	5(8.1)	5(8.1)	0(0)	0(0)	62(100)		
연 령	20대	15(62.5)	5(20.8)	2(8.3)	0(0)	2(8.3)	0(0)	24(100)	23.585	.099
	30대	28(56.0)	9(18.0)	7(14.0)	6(12.0)	0(0)	0(0)	50(100)		
	40대	22(46.8)	20(42.6)	1(2.1)	3(6.4)	1(2.1)	0(0)	47(100)		
	50대	16(48.5)	10(30.3)	5(15.2)	2(6.1)	0(0)	0(0)	33(100)		
	60대	2(100)	0(0)	0(0)	0(0)	0(0)	0(0)	2(100)		
전 체		83(53.2)	44(28.2)	15(9.6)	11(7.1)	3(1.9)	0(0)	156(100)		

<표 18> 영재 판별 방법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복수 응답)-N(%)-

구 분	사 전 설 문				사 후 설 문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지능 검사	48 (27.6)	70 (40.2)	18 (10.3)	136 (26.1)	52 (29.9)	58 (33.3)	19 (10.9)	129 (24.7)
학업 성취도	10 (5.7)	27 (15.5)	45 (25.9)	82 (15.7)	6 (3.4)	21 (12.1)	49 (28.2)	76 (14.6)
창의력 검사	106 (60.9)	38 (21.8)	15 (8.6)	159 (30.5)	88 (50.6)	45 (25.9)	12 (6.9)	145 (27.8)
교사의 추천	6 (3.4)	9 (5.2)	21 (12.1)	36 (6.9)	6 (3.4)	10 (5.7)	29 (16.7)	45 (8.6)
부모의 추천	0 (0)	1 (0.6)	3 (1.7)	4 (0.8)	1 (0.6)	3 (1.7)	5 (2.9)	9 (1.7)
학급 동료의 추천	0 (0)	0 (0)	1 (0.6)	1 (0.2)	0 (0)	0 (0)	2 (1.1)	2 (0.4)
자기 지명	0 (0)	0 (0)	0 (0)	0 (0)	0 (0)	2 (1.1)	2 (1.1)	4 (0.8)
잘 모르겠다	2 (1.1)	0 (0)	1 (0.6)	3 (0.6)	2 (1.1)	0 (0)	0 (0)	2 (0.4)
기타 및 무응답	2 (1.1)	29 (16.7)	70 (40.2)	101 (19.3)	19 (10.9)	35 (20.1)	56 (32.2)	110 (21.1)
전 체	174 (100)	174 (100)	174 (100)	522 (100)	174 (100)	174 (100)	174 (100)	522 (100)

2. 영재 판별 방법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18>과 같이 교사들은 영재 판별 방법으로 창의력 검사를 가장 많이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사후 설문 결과 연수 후에도 사전 설문과 거의 비슷한 결과였다. 연수 중에도 창의력에 관한 교사들의 반응이 매우 높았으며, 영재에 있어서 창의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학급 내 영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19>와 같이 많은 교사들이 영재의 정의와 특성 및 영재 판별 방법에 대해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영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의 일차적 판별을 교사 추천으로 하고 있음은 영재교육의 효율성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학급 내 영재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변인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표 19> 학급 내 영재의 존재에 대한 사전 설문 분석 -N(%)-

변 인		구 분	사 전 설 문				χ^2	p
			있다	없다	잘 모름	전체		
성 별	남		3(23.1)	9(69.2)	1(7.7)	13(100)	2.346	.309
	여		16(10.1)	119(74.8)	24(15.1)	159(100)		
교 직 경 력	5년 미만		4(12.1)	26(78.8)	3(9.1)	33(100)	15.472	.051
	5년~10년 미만		2(7.7)	20(76.9)	4(15.4)	26(100)		
	10년~15년 미만		0(0)	14(70.0)	6(30.0)	20(100)		
	15년~20년 미만		6(27.3)	16(72.7)	0(0)	22(100)		
	20년 이상		7(9.9)	52(73.2)	12(16.9)	71(100)		
연 령	20대		3(12.0)	21(84.0)	1(4.0)	25(100)	9.824	.278
	30대		4(7.4)	40(74.1)	10(18.5)	54(100)		
	40대		9(17.6)	37(72.5)	5(9.8)	51(100)		
	50대		3(7.7)	27(69.2)	9(23.1)	39(100)		
	60대		0(0)	3(100)	0(0)	3(100)		
전 체			19(11.0)	128(74.4)	25(14.5)	172(100)		

<표 20> 사전 설문 시 학급 내 영재의 수

영재수	빈도(명)	백분율(%)
1	13	72.2
2	4	22.2
3	1	5.6
전체	18	100.0

<표 21> 사후 설문 시 학급 내 영재의 수

영재수	빈도(명)	백분율(%)
1	22	25.9
2	25	29.4
3	23	27.1
4	7	8.2
5	4	4.7
6	1	1.2
7	1	1.2
8	1	1.2
9	1	1.2
전체	85	100.0

또한 <표 20>과 같이 학급 내의 영재의 수를 기록 해준 교사는 모두 18명이었고, 학급의 인원수는 30~47명 정도 이었으며, 18명 중 72.2%의 교사들이 학급 내에 영재가 단지 1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후 설문에서는 학급 내 영재가 있다는 가정 하에 영재의 수를 기록하도록 했는데 85명의 교사들이 영재수를 기록해 주었고, 학급 당 인원수는 사전 설문과 동일하게 30~47명 정도였으며, <표 21>과 같이 학급 내 영재 수는 사전 설문보다 학급 내 영재의 존재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응답해 주었으며, 학급 내 영재수도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D.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22>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재의 교육 프로그램	11. 영재교육 프로그램 경험 11-(1) 영재 프로그램 사용 의향 16. 영재교육 프로그램 (1-9)

1.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에 대한 현황

<표 23>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에 대한 사전 설문 분석

구분		사전 설문			χ^2	p
		있다	없다	전체		
성별	남	2(15.4)	11(84.6)	13(100)	.631	.427
	여	14(8.7)	147(91.3)	161(100)		
교직 경력	5년 미만	2(5.9)	32(94.1)	34(100)	5.780	.216
	5년~10년 미만	2(7.7)	24(92.3)	26(100)		
	10년~15년 미만	1(5.0)	19(95.0)	20(100)		
	15년~20년 미만	5(22.7)	17(77.3)	22(100)		
	20년 이상	6(8.3)	66(91.7)	72(100)		
연령	20대	2(7.7)	24(92.3)	26(100)	2.523	.640
	30대	3(5.6)	51(94.4)	54(100)		
	40대	7(13.7)	44(86.3)	51(100)		
	50대	4(10.0)	36(90.0)	40(100)		
	60대	0(0)	3(100)	3(100)		
전체		16(9.2)	158(90.8)	174(100)	* p<.05	

사후 설문에서는 연수 내용 중에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그 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연수를 통해 접해보았다고 가정하여 이 문항을 제외하였다.

<표 23>과 같이 대다수의 교사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접해 본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변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2.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사용 의향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24>와 같이 사전 설문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16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사들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설문에서 변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사후 설문에서는 이미 연수를 통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접해 보았으므로 사용 의향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였다. 따라서 152명의 교사들이 이 문항에 응답을 하여, 75.5%의 교사들이 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반 수업이나 심화학습 시간에 영재들을 위해 사용해 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전 설문 시와 같은 비율이나 교사의 빈도수는 훨씬 많아졌다. 이는 연수를 통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접해 보았기 때문이므로, 일반 교사들에게도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리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사용 의향에 대해 교직 경력간과 연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P<.05$). 즉 교직 경력이 5년 ~ 10년 미만의 교사들이 다른 교직 경력을 지닌 교사들에 비해 사용 의향이 낮게 나타났고, 6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사용 의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3.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변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분석과 해석은 변인별 분석이 아닌, 3단계 척도인 전혀 모른다(1), 조금은 알고 있다(2), 잘 알고 있다(3)에 따라 분석하였다. 인식 차이를 알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변인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도 수준 $P<.05$ 로 하여 t테스트를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생략하였다.

<표 25>와 같이 사전 설문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평균 1.50으로 보통의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 설문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평균 2.10으로 보통이상으로 사전 설문보다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수를 통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접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사용 의향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변 인		사 전 설 문				사 후 설 문					
		있다	없다	전체	χ^2	p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 별	남	1 (50.0)	1 (50.0)	2 (100)	.762	.383	10 (83.3)	2 (6.7)	12 (100)	.483	.487
	여	11 (78.6)	3 (21.4)	14 (100)			104 (74.3)	36 (25.7)	140 (100)		
교 직 경 령	5년 미만	1 (50.0)	1 (50.0)	2 (100)	1.956	.744	26 (86.7)	4 (13.3)	30 (100)	9.602	.048*
	5년 ~ 10년 미만	1 (50.0)	1 (50.0)	2 (100)			14 (58.3)	10 (41.7)	24 (100)		
	10년 ~ 15년 미만	1 (100)	0 (0)	1 (100)			14 (73.7)	5 (26.3)	19 (100)		
	15년 ~ 20년 미만	4 (80.0)	1 (20.0)	5 (100)			16 (94.1)	1 (5.9)	17 (100)		
	20년 이상	5 (83.3)	1 (16.7)	6 (100)			44 (71.0)	18 (29.0)	62 (100)		
	연 령	20대	1 (50.0)	1 (50.0)			2 (100)	1.206	.751		
30대	2 (66.7)	1 (33.3)	3 (100)	36 (73.5)	13 (26.5)	49 (100)					
40대	6 (85.7)	1 (14.3)	7 (100)	37 (80.4)	9 (19.6)	46 (100)					
50대	3 (75.0)	1 (25.0)	4 (100)	23 (71.9)	9 (28.1)	32 (100)					
60대	0 (0)	0 (0)	0 (0)	0 (0)	3 (100)	3 (100)					
전 체		12 (75.0)	4 (25.0)	16 (100)			114 (75.0)	38 (25.0)	152 (100)	* $p<.05$	

〈표 25〉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N(%)-

문항 번호 및 내용	구분	사전 설문			사후 설문		
		N	M	SD	N	M	SD
1	속진 프로그램	158	1.28	.542	148	2.15	.653
2	심화 프로그램	157	1.35	.587	148	2.10	.603
3	압축 프로그램	155	1.20	.489	148	2.02	.633
4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의 의미와 그 차이	160	1.94	.694	149	2.28	.656
5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의미와 그 차이	160	2.00	.727	149	2.23	.630
6	브레인스토밍의 방법과 규칙	160	1.94	.627	149	2.21	.633
7	스캅퍼(SCAMPER)	156	1.17	.427	148	2.01	.644
8	창의적 문제 해결(CPS) 과정의 기본 모형	158	1.41	.588	147	2.01	.619
9	랜줄리의 삼부심화학습 모형	157	1.18	.513	146	1.90	.636
	전 체	1421	1.50	.674	1332	2.10	.646

E.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26〉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재 담당 교사	12. 영재교육 연수 참여 의향 12-(1) 참여, 불참여 이유 14. 영재 담당 교사 의향 14-(1) 이유 14-(2) 원하는 인센티브

1. 영재교육 연수 참여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27〉 영재교육 연수 참여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N(%)-

변인	구분	사전 설문					사후 설문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다	전체	χ^2	p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다	전체	χ	p
성별	남	7 (63.6)	4 (36.4)	11 (100)	.281	.596	8 (72.7)	3 (27.3)	11 (100)	.580	.446
	여	82 (55.4)	66 (44.6)	148 (100)			85 (61.2)	54 (38.8)	139 (100)		
교직 경력	5년 미만	21 (65.6)	11 (34.4)	32 (100)	3.008	.556	21 (67.7)	10 (32.3)	31 (100)	4.918	.296
	5년~10년 미만	13 (59.1)	9 (40.9)	22 (100)			18 (75.0)	6 (25.0)	24 (100)		
	10년~15년 미만	12 (63.2)	7 (36.8)	19 (100)			12 (70.6)	5 (29.4)	17 (100)		
	15년~20년 미만	9 (47.4)	10 (52.6)	19 (100)			10 (55.6)	8 (44.4)	18 (100)		
	20년 이상	34 (50.7)	33 (49.3)	67 (100)			32 (53.3)	28 (46.7)	60 (100)		
연령	20대	17 (70.8)	7 (29.2)	24 (100)	6.905	.141	16 (66.7)	8 (33.3)	24 (100)	7.868	.097
	30대	29 (59.2)	20 (40.8)	49 (100)			35 (71.4)	14 (28.6)	49 (100)		
	40대	24 (50.0)	24 (50.0)	48 (100)			24 (55.8)	19 (44.2)	43 (100)		
	50대	19 (54.3)	16 (45.7)	35 (100)			18 (58.1)	13 (41.9)	31 (100)		
	60대	0 (0)	3 (100)	3 (100)			0 (0)	3 (100)	3 (100)		
	전 체	89 (56.0)	70 (44.0)	159 (100)			93 (62.0)	57 (38.0)	150 (100)		

<표 27>과 같이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후 설문 결과 연수 후에는 받고 싶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조금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사후 설문 모두에 있어서 변인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표 28>과 같이 교사들이 영재에게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적절한 지도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재교육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부정적이다가 연수를 받은 후에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하기는 했으나 업무의 과다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보여준다.

2. 영재 담당 교사 의향에 대한 인식의 현황 및 변화

<표 29>와 같이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매우 낮음을 나타냈다. 사후 설문 결과 연수 후에도 사전 설문의 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설문에서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즉 남자 교사들은 영재 담당 교사를 하고 싶다는 교사들과 하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이 똑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여자 교사들은 하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이 하고 싶다는 교사들보다 3배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 설문에서 변인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표 30>과 같이 영재 담당 교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 모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자신이 없어서라고 기록한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영재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극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표 31>과 같이 폭 넓은 경험을 요하는 국외 연수가 가장 높았으며, 업무 부담과 연구비 보조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영재 담당 교사들을 위한 자료로 참고하면 교사들을 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표 28> 영재교육 연수 참여 의사에 대한 이유 -N(%)-

연수를 받고 싶은 이유	사전 설문	사후 설문	연수를 받고 싶지 않은 이유	사전 설문	사후 설문
영재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46 (51.7)	31 (33.3)	영재교육보다 다른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6 (8.6)	3 (5.3)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13 (14.6)	11 (11.8)	다른 업무가 과다해서	5 (7.1)	5 (8.8)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고 필요성을 느껴서	7 (7.9)	5 (5.4)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7 (10.0)	3 (5.3)
영재를 발굴하고 싶어서	0 (0)	8 (8.6)	영재교육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4 (5.7)	2 (3.5)
국가 발전을 위해서	0 (0)	5 (5.4)	영재교육은 영재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6 (8.6)	2 (3.5)
무응답	23 (25.8)	33 (35.5)	무응답	42 (60.0)	42 (73.7)
전체	89 (100)	93 (100)	전체	70 (100)	57 (100)

<표 29> 영재 담당 교사 의향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 분석 -N(%)-

변인	구분	사전 설문					사후 설문						
		하고 싶다	인센티브 가 있다면 한다	하고 싶지 않다	전체	χ^2	p	하고 싶다	인센티브 가 있다면 한다	하고 싶지 않다	전체	χ^2	p
성별	남	6 (46.2)	1 (7.7)	6 (46.2)	13 (100)	6.633	.036*	3 (25.0)	2 (16.7)	7 (58.3)	12 (100)	.019	.991
	여	26 (17.1)	28 (18.4)	98 (64.5)	152 (100)			33 (23.9)	25 (18.1)	80 (58.0)	138 (100)		
교직 경력	5년 미만	7 (21.9)	7 (21.9)	18 (56.3)	32 (100)	10.288	.245	10 (32.3)	7 (22.6)	14 (45.2)	31 (100)	12.977	.113
	5년 ~ 10년 미만	7 (26.9)	3 (11.5)	16 (61.5)	26 (100)			4 (16.0)	4 (16.0)	17 (68.0)	25 (100)		
	10년 ~ 15년 미만	5 (26.3)	6 (31.6)	8 (42.1)	19 (100)			6 (35.3)	4 (23.5)	7 (41.2)	17 (100)		
	15년 ~ 20년 미만	2 (10.5)	5 (26.3)	12 (63.2)	19 (100)			4 (23.5)	6 (35.3)	7 (41.2)	17 (100)		
	20년 이상	11 (15.9)	8 (11.6)	50 (72.5)	69 (100)			12 (20.0)	6 (10.0)	42 (70.0)	60 (100)		
	전체	32 (19.4)	29 (17.6)	104 (63.0)	165 (100)			36 (24.0)	27 (18.0)	87 (58.0)	150 (100)		
연령	20대	7 (28.0)	6 (24.0)	12 (48.0)	25 (100)	6.487	.593	9 (37.5)	5 (20.8)	10 (41.7)	24 (100)	7.991	.434
	30대	12 (23.1)	9 (17.3)	31 (59.6)	52 (100)			11 (22.0)	12 (24.0)	27 (54.0)	50 (100)		
	40대	8 (16.7)	9 (18.8)	31 (64.6)	48 (100)			9 (21.4)	7 (16.7)	26 (61.9)	42 (100)		
	50대	5 (13.5)	5 (13.5)	27 (73.0)	37 (100)			7 (21.9)	3 (9.4)	22 (68.8)	32 (100)		
	60대	0 (0)	0 (0)	3 (100)	3 (100)			0 (0)	0 (0)	2 (100)	2 (100)		
전체	32 (19.4)	29 (17.6)	104 (63.0)	165 (100)	36 (24.0)	27 (18.0)	87 (58.0)	150 (100)	* p<.05				

<표 30> 영재 담당 교사 의향에 대한 이유

연수 담당 교사를 하고 싶은 이유	사전 설문	사후 설문	영재 담당 교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사전 설문	사후 설문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느껴서	7 (21.9)	4 (11.1)	능력이 부족하고 생각되고 자 신이 없어서	24 (23.1)	15 (17.2)
영재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5 (15.6)	7 (19.4)	영재교육은 영재 전문가가 해 야 된다고 생각해서	5 (4.8)	3 (3.4)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싶어서	4 (12.5)	4 (11.1)	관심이 없고 필요하다고 느껴 지 않아서	9 (8.7)	5 (5.7)
관심이 있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서	5 (15.6)	2 (5.6)	업무가 과다해서	4 (3.8)	4 (4.6)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알고 싶어서	4 (12.5)	5 (13.9)		0 (0)	0 (0)
무응답	7 (21.9)	14 (38.9)	무응답	62 (59.6)	60 (69.0)
전체	32 (100)	36 (100)	전체	104 (100)	87 (100)

<표 31> 영재 담당 교사가 될 경우 원하는 인센티브

영재 담당 교사가 될 경우 원하는 인센티브	사전 설문	사후 설문
국외 연수	9(31.0)	11(40.7)
업무 경감	8(27.6)	9(33.3)
연구비 보조	6(20.7)	6(22.2)
유급 연구년	4(13.8)	1(3.7)
전보 제외	1(3.4)	0(0)
무 응 답	1(3.4)	0(0)
전 체	29(100)	27(100)

F. 연수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태도

사후 설문에는 사전 설문에 없는 문항을 추가로 첨가하여 넣었는데, 교사들의 연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3문항이다.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및 내용
연수에 대한 태도	15. 연수 내용에 대한 태도 16. 더 받고 싶은 연수 내용 17. 영재교육에 대한 의견

1. 연수 내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태도

<표 33>과 같이 전체적으로 유익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연수 태도에 있어서 변인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는 현재 영재 담당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사들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교사들에게도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표 33> 연수 내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태도 -N(%)-

변인	구분	사 후 설 문				χ^2	p
		유익했다	유익하지 못했다	기타	전치		
성별	남	12(100)	0(0)	0(0)	12(100)	.866	.649
	여	124(93.2)	8(6.0)	1(0.8)	133(100)		
교직경력	5년 미만	28(96.6)	1(3.4)	0(0)	29(100)	2.091	.978
	5년~10년 미만	23(95.8)	1(4.2)	0(0)	24(100)		
	10년~15년 미만	15(93.8)	1(6.3)	0(0)	16(100)		
	15년~20년 미만	17(94.4)	1(5.6)	0(0)	18(100)		
	20년 이상	53(91.4)	4(6.9)	1(1.7)	58(100)		
연령	20대	21(95.5)	1(4.5)	0(0)	22(100)	4.314	.828
	30대	46(95.8)	2(4.2)	0(0)	48(100)		
	40대	39(92.9)	3(7.1)	0(0)	42(100)		
	50대	28(90.3)	2(6.5)	1(3.2)	31(100)		
	60대	2(100)	0(0)	0(0)	2(100)		
전체		136(93.8)	8(5.5)	1(0.7)	145(100)		

2. 연수 받고 싶은 영재교육 내용

<표 34>와 같이 많은 교사들이 다른 문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재교육의 연수 내용을 설정할 때 이러한 교사들의 욕구를 반영하면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영재교육의 활성화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교육받고 싶은 영재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변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3. 영재교육에 대한 의견

<표 34> 연수를 받고 싶은 내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태도 -N(%)-

변인	구분	사 후 설 문					χ^2	p
		영재의 정의와 특성	영재의 판별	영재의 교육 방법	각 나라 영재교육의 현황	기타		
성별	남	0(0)	3(25.0)	8(66.7)	1(8.3)	0(0)	.674	.879
	여	0(0)	35(26.1)	93(69.4)	5(3.7)	1(0.7)		
교직경력	5년 미만	0(0)	8(26.7)	21(70.0)	1(3.3)	0(0)	6.687	.878
	5년~10년 미만	0(0)	7(30.4)	16(69.6)	0(0)	0(0)		
	10년~15년 미만	0(0)	4(25.0)	10(62.5)	2(12.5)	0(0)		
	15년~20년 미만	0(0)	4(22.2)	14(77.8)	0(0)	0(0)		
	20년 이상	0(0)	15(25.4)	40(67.8)	3(5.1)	1(1.7)		
연령	20대	0(0)	7(30.4)	15(65.2)	1(4.3)	0(0)	7.669	.810
	30대	0(0)	12(26.1)	33(71.7)	1(2.2)	0(0)		
	40대	0(0)	14(31.8)	27(67.4)	2(4.5)	1(2.3)		
	50대	0(0)	4(12.9)	25(80.6)	2(6.5)	0(0)		
	60대	0(0)	1(50.0)	1(50.0)	0(0)	0(0)		
전체		0(0)	38(26.0)	101(69.2)	6(4.1)	1(0.7)		

〈표 35〉 영재교육에 대한 의견

번호	내용
1	영재라고 생각되는 아동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교사들에게 자세히 주었으면 한다.(교사가 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2	수학 과학 외에 다양한 영역-발명, 미술, 만화, 음악 등-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3	분야별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영재아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겠다. 영재아가 자만심 갖지 않게 지도해야겠다.
5	영재교육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저학년부터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데, 영재교육의 출발점으로 너무 이른 것 같다. 저 연령층에서는 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6	영재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및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7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분야가 설정되어야 하고,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8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지가 학교에 무상으로 배급되었으면 한다.
9	영재교육으로 인한 사회의 반감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10	영재교육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연계 지도가 이루어져야한다
11	영재가 아닌 교사가 영재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교사 자신이 영재여야 잘 이해하고 지도해줄 수 있다,
12	영재교육을 많이 보급을 많이 해서 영재들이 사장되지 않으면 좋겠다.
13	민간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신뢰성 있는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시스템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14	저소득층의 영재아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수가 제한되어 교육기회가 적다

V. 결 론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해석해 본 결과,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이고 높은 편이었으나 세부적인 정보나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의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인식은 들어본 정도의 인식 수준에 있었고, 현재의 초등학교 교육 실태가 영재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영재에 대한 특별한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재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학급에서의 영재에 대한 교육적 조치는 거의 하고 있지 않아 실제적인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매우 낮았다. 그리고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인식도는 높았다.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영재들의 정의적 특성에 관해서는 인식도가 매우 낮았고, 평균적으로는 보통 정도였다. 영재의 판별에 대한 인식은 영재교육 시기나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적인 면에서는 인식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적인 학급

내의 영재를 판별하는 데는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조기에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창의력이나 지능 검사, 학업 성취도, 그리고 추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판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높았고, 학급 내 영재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판별하여 실제적인 판별에서는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프로그램에 접해 본 경험이 없었고,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담당 교사가 되는 것은 업무의 과다와 능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매우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재교육관련 기본지식에 대한 연수를 받은 후,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면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재교육 진흥법에 대한 인식이 들어본 수준에서 잘 알고 있다는 수준으로 인식이 매우 높아졌고, 학급에 있는 영재아에 대한 지도를 연수 전에는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연수 후에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수업시 심화학습으로 지도하겠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나타났다. 다른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이미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져서, 사전 설문에서 매우 인식도가 낮았던 정의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모든 내용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이 보통 이상의 높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재의 판별 시기는 사전 설문에서 초등학교로 응답했던 교사들이 유치원에 응답함으로써 유치원에 응답한 교사들의 수가 제일 많게 나타나서, 영재의 조기 발견과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또한 학급내 영재의 판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져서 학급 내 영재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영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영재교육 연수에 있어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들의 수가 조금 증가해서 연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 되었다. 그러나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매우 낮아서 하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이 연수 후에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재교육관련 기본지식에 대한 연수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있어서,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재교육관련 기본지식에 대한 연수를 받은 후,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 영재의 판별방법에 대한 인식,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 졌다. 특히 영재의 특성이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영재 판별과 영재 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영재교육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재 담당교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연수 후에도 영재 담당 교사가 되는 것을 대다수의 교사들이 원하지 않았다. 즉 지식적인 면에 있어

서의 인식은 연수를 통해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으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인식의 변화는 현 초등학교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변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등학교에 비해 너무 많은 주당 수업 시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영재교육 자체를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원했던 여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영재 담당 교사들만이 아닌 일반 교사들에게도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주어야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연수와 더불어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도 교육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모임과 연구에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재교육에 관한 학과목을 교사교육을 위한 정규교과목으로 하여 영재 교육에 관한 기초지식을 교사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전경원·박정옥,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양서원, 1993
 전경원, 휴머니즘에 입각한 특수한 영재교육, 서원, 1994
 문정화·하종덕 공저,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 학지사, 1999
 전경원, 영재교육학, 학문사, 2000
 G.A. Davis & S.B. Rimm,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학문사, 2001
 김홍원, 영재교육 담당 교원 자질 및 양성·임용, 한국영재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2
 박성익 외, 영재교육학원론, 교육과학사, 2003
 박정옥, Attitude Toward Gifted Education in Korea, 12th World Conference of the World Council and Talented Children 발표, 1997
 이승헌, 영재교육 제도와 운영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미영, 영재교육에 대한 초등 및 유치원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임인섭,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유미림, 영재교육에 대한 국제비교 및 교사·학부모의 인식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조형숙, 초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강명숙,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계명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우희정, 영재교육 프로그램 담당교사의 영재교육관련 지식수준에 대한 실태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조석희 외, 제 5기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3
 Karen B. Rogers, Re-forming Gifted Educatopm, Great Potential Press, 2002
 Marland, S. P.,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Report to the subcommittee on Education, committee on Labor and Public Welfare, US Senate),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